

건강칼럼

가슴통증은 심장이 문제인가?

흉통(胸痛)이란 말 그대로 가슴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을 말한다. 흉통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대개 흉통이 나타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된다.

물론 심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흉통이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소화기계나 신경 및 근골격계, 폐질환, 심지어는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도 흉통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들을 뜻한다. 허혈성 심질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포함되며 이들 질환은 혈액공급의 일시적인 차질로 흉통이 나타날 수 있다.

협심증 환자의 흉통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관해되기도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걸거나 과식한 후 심장근육이 일을 많이 해야 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쉬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심근경색 환자는 가만히 쉬고 있어도 가슴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허혈성 심질환으로 흉통을 겪는 환자들은 대체로 숨이 멈출 것 같이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며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따가운 증상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조이는 느낌, 빠르함, 무거운 것으로 눌리는 압박감, 터지는 느낌, 답답함,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느낌도 든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나타나는 흉통은 성격이 비슷하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흉통은 30여 분 이상 지속되는 등 증상이 더욱 심각하다.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구토감, 진

땀, 소근에 빠질 수 있으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흉통이 발생하거나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그 즉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소화기계 중 식도의 문제로 인한 통증은 협심증과 가장 혼동되기 쉽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앞 가슴부위 뿐만 아니라 등쪽에서도 통증이 나타난다. 통증이 명치끝이나 흉골(복장뼈) 아래쪽으로 되는 듯하게 느껴지며 누운 자세나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악화된다. 우유나 물을 마시면 위산이 중화돼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될 수 있으며 상체를 높인 자세만으로도 통증이 경감되는 특징이 있다.

식도 경련 환자가 통증을 느낄 경우 흉골 아래쪽 부위에 타는 듯하다. 쥐어짜는 표현을 많이 쓴다. 등, 팔, 턱 등으로 통증이 퍼져나가는 방사통을 일으키며 대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발생하고 수분에서 수 시간 동안 지속된다.

평소 운동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연하운동, 위 내 음식물의 역류 등으로 통증이 유발된다면 식도 경련을 의심해볼 수 있다. 또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흉통의 경우에도 음식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산제로 완화될 수 있다. 급성 체장염의 통증은 심근경색과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증이 명치끝에서 나타나며 웅크린 자세로 완화되고, 알코올 중독이나 담낭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 의심할 수 있다.

갈비뼈에 연결된 연골(늑연골)에 발생한 염증도 흉통을 유발할 수 있다. 상체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과 함께 '뚝' 소리가 나고 심호흡을 하면 가슴이 바늘에 찌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나 늑연골염에 의한 흉통은 아픈 곳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흉통과는 다르다.

특히 늑연골염으로 인한 흉통은 헬스나 수영 등 무리한 운동이 원인이므로 20~30대 연령에서 흉통 환자의 경우 스키만 해도 아픈 경우가 많다. 또한 경추 흉추의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흉통은 상체의 움직임, 특정 자세,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상포진 환자의 경우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통증 발생 4~5일이 지나면 전형적인 대상포진 수포가 나타난다.

이밖에도 흔치 않으나 여러 신경, 혈관 구조물이 갈비뼈나 근육에 의해 눌려서 통증이 유발되는 흉곽출구증후군 또한 협심증과 혼동될 일 수 있다. 그러나 통증이 머리, 목, 어깨 및 겨드랑이 부위로 나타나며 대개 팔 인접의 통증을 동반한다. 폐질환 중 폐색전증에 의한 흉통은 심근경색과 혼동할 수 있다. 휴식 시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 빈호흡 청색증 등이 동반된다. 기흉이나 폐렴도 흉통의 원인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부위에서만 나타나는 일측성을 띠며 호흡기계 관련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

김상곤

유성선병원 심장내과 과장



독자제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주는 '가정폭력'

요즘 TV와 인터넷에서는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숨진 신원영군의 이야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평택 실종아동이었던 신원영군은 수년을 구타당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정 내 폭력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각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신고가 들어오면 전담경찰관이 가정폭력의 재발이 없는지, 다른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또한 사전 처리는 원치 않고 가정유지를 원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가족상담사와 연결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다.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국번 없이 112 또는 1366(여성긴급상담전화)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 이종립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내주변 아이들에게 보다더 관심을

최근 '고성 7세 여아 학대 사망사건'에 이어 '신원영군 계모 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온 국민들은 형용할 수 없는 크나큰 충격과 분노의 슬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힘없는 어린이, 누구보다 사랑받고 자라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라는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속에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잔혹하고 처참한 행위는 사회적 인륜의 존폐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최근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가해자의 80%는 부모였고 학대 장소 역시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제 아이들이 믿고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마저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에 처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내 주변 이웃집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주변의 여러 신고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심재환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사설

도내 중소 벤처기업들의 현주소

도내 중소 벤처기업들의 현주소가 궁금하다. 재미를 못보고 있다는 보도를 이따금 접한 적이 다시 생각나서 말이다. 수출 전선의 침범영향을 해오다가 지난 수년간 고전의 연속이었다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수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보도도 생각하는데 경기가 갈수록 어려운 때라해서 염려가 된다. 그대 그에 대해서도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다.

전북도는 이같은 공황중에 대해 대안이 명쾌해야겠다. 만약 그 대안할 말이 마땅치 않다면 전북도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가 벤처기업 육성을 말해왔던 것과 결과가 판판이라면 반드시 그 대하는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때, 벤처기업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희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다시 답답하거나, 전북도는 도내 벤처기업들에 대한 현실 파악이 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벤처기업과 관련해 빛이 비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있던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미래

가 밝을 거라고 낙관적인 보고를 많이 했다. 일자리 창출이 고용 안정 성과도 상당할 거라고 믿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발표를 끈이끈대로 믿은 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도내 중소 벤처기업들이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로는 관철은 일자리를 바라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벤처기업들의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

도내 벤처 기업의 상당수는 젊은 기업인들의 창업에서 출발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벤처기업인 양산과 맞물려 돌아온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그 결과가 어찌됐는지 너무 조용하다. 만약 흔들리는 벤처기업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줘야 할때가 바로 지금이다. 경제 비뚤음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더니 돌아온 것은 답답한 현실뿐이려해도 도와야 한다. 벤처기업인들의 어려운 현실과 관련해 고위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전북도가 언젠가 말했던대로 투자자를 많이 발굴 해주어야겠다. 그 발굴 작업을 통해서 벤처기업들을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말하는 전북의 미래

한국고용정보원이 말하는 전북의 미래가 암담하다. 30년 후면 10개 지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먼 미래의 일이라 과연 그럴까 싶지만 안 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한국고용정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말했다는 리는 만무하다.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말했다는 터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허투로 던져보듯 말한 게 아니고보면 전북의 미래가 많이 걱정된다.

사실이지 전북도는 지금 마음을 써야 할 것이 많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하고, 비정규 직장인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연장에서 도내 실제 거주 인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보도를 보면 현재 186만 명성이 위태위태하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이어서 이번엔 또 다시 인구 186만 명성이 무너질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 실상73살으로 30년 후에 10개 지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 보통 답답한 게 아니다.

전북도는 도내 거주 인구의 현실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이들이 타지로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런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그러고 있다.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하향 교착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다는 진단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에 한국고용원이 그집을 지적했는데 도내에 20세에서 30세까지의 여성이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북도에 주는 말의 요지는 분명하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에만 마음을 썼는데 이제 젊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도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청년 인구의 유출도 문제지만 젊은 여성의 유출이 더 문제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진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땅하다. 지금 전북도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하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